

Unusual nonvariceal upper gastrointestinal bleeding due to duodenal invasion of tuberculous lymphadenitis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이두현, 김상훈, 김연주, 박선영, 박창환, 김현수, 최성규, 류종선

서론: 상부위장관 출혈은 대개 매년 0.1% 발생하며 남자와 고령에서 빈도가 증가한다. 흔한 원인으로 원인으로는 소화성 궤양, 위식도정맥류, 동정맥기형 등이 있다. 저자 등은 결핵성 림프절염의 십이지장 침윤으로 인한 상부위장관 출혈 1예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52세 여자가 2시간전 발생한 토혈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에서 결핵성 수막염과 결핵성 림프절염으로 치료(2010.7.2~2010.9.15 INH 300 mg, RFP 600 mg, EMB 800 mg, PZA 1500 mg 2010.9.15~INH 300 mg, RFP 600 mg, EMB 800 mg) 중이었다. 상부 위장관 내시경에서 외부압박을 의심할만한 십이지장 구부의 돌출과 노출혈관을 동반한 궤양이 관찰되었다. 복부 CT에서 십이지장 구부에 약 4 cm 크기의 돌출하고 있는 종괴와 조영제의 혈관바깥유출이 관찰되었으며 주변 묻혀있는 림프절 전이와 간전이가 관찰이 되었다. 활동성 출혈을 동반한 종괴에 대한 수술적 제거를 하였고, 조직검사에서 괴사를 동반한 육아종성 병변이 관찰되어 항결핵제 투약 (INH 300 mg, RFP 600 mg, EMB 800 mg)을 지속 하였다. 치료 4개월째 추적 CT에서 이전 묻혀있던 림프절의 크기가 감소하였고 증상 호전되어 현재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다발성 대장 용종의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 시행 후 발생한 Chilaiditi 징후 1예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조동근, 이기훈, 조대호, 송영아, 박강진, 조성범, 박창환, 김현수, 최성규, 류종선, 주영은

Chilaiditi징후(Chilaiditi's sign)란 간과 횡격막 사이에 대장이 위치하는 것으로, 흉부 또는 복부 단순촬영에서 우측 횡격막하 공기음영으로 우연히 발견된다. 대부분은 무증상이나 복통, 복부 팽만, 구토, 변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하는 경우 Chilaiditi 증후군이라 부른다. 장결장(dolichocolon), 폐기종, 간경화, 임신, 비만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치료는 대부분 대증요법으로 호전을 보이거나 드물게 장폐쇄나 장염전을 일으키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 Chilaiditi징후는 횡격막하의 공기음영을 보이는 기복증이나 횡격막하 농양으로 오인되어 불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이들 질환과의 감별이 중요하다. 저자들은 다발성 대장 용종의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 시행 후 발생한 Chilaiditi징후 첫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74세 남자가 다발성 대장 용종이 발견되어 내원하였다. 환자는 3개월 전 담낭염으로 담낭절제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었다. 내원시 복부진찰에서 특이소견은 없었고, 단순 흉부 및 복부 X-선 검사에서도 특이소견은 없었다. 대장 내시경에서 맹장에 20 mm 크기의 측방 발육형 종양과 S장 결장에 15 mm크기의 유경성 용종이 발견되었고, 이를 투명캡을 이용하여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에 환자가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였으며 복부 진찰에서 복부는 팽창되어 있었으나 압통이나 반발통은 보이지 않았다. 시술 후 촬영한 흉부와 복부 단순촬영에서 입원시 보이지 않았던 우측 횡격막 하방에 공기가 보였다. 우측 횡격막하 공기는 표출상(haustral marking)을 보였으며, 이는 대장이 간과 우측횡격막 사이에 위치하여 생기는 Chilaiditi징후를 나타내었다. 이 환자의 경우 대장 내시경 시술 중에 과다한 공기 주입으로 인해 대장의 과다 팽창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금식 및 수액요법 등의 보존적인 치료 후에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이 증례와 같이 대장내시경 시술 후에 발생한 Chilaiditi 징후는 내시경 시술로 인한 장천공으로 기복증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되어 불필요한 개복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질환과 감별이 중요하다.